

# '그라운드 서학 24' 8명 작가 작품 전시

아트갤러리 전주·서학아트스페이스서 21일~4월 10일 조각·사진·순수 회화 등 만날 수 있어

2024년 봄 햇살 아래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 '그라운드서학 24'는 서학동 예술 마을의 갤러리길에 위치한 '서학아트스페이스'와 '아트갤러리전주'에서 오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열린다. 그라운드서학 24는 장르 별로 다채로운 예술가들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전시는 작년의 성공적인 전시를 이어가며, 실험적인 작가들의 초대전시와 스몰 아트페어로 구성돼 있다. 조각, 사진, 순수 회화 등 다양한 작품을 눈앞에서 감상할 수 있다.

참여 예술가로는 사진작가 박미정, 손은영을 비롯해 회화 작가로 김누리, 김시오, 노미정, 이주원, 그리고 조각가로 박재연, 조진규가 참여한다.

먼저, 패션관련 직종에 종사한 박미정 작가는 평소 사물을 재구성 하는데 공을 들인 경력으로 주변에서 쉽게 소비되고 버려지는 것들에 대한 아름다운 애도로부터 접근한 작품을 선보인다.

손은영 작가는 사진가이면서 회화와 사진 디자인을 전공했으며, 작품제목인 '기억의 집'을 통해 물질적 가치로 평가되는 주택에 대한 기억속의 애뜻한 가족의 모습을 재연하는 새로운 주택의 이미지의 구성으로 파스칼과 화사한 색채로 담아내며 정서적인 온기를 품고 있는 오브제로 배치했다.

김누리 작가는 뉴욕에서의 외로운 생활에서 버림받은 주위의 단골가게로 시작된 현재의 작품들은 귀국이후에도 소중했던 곳에 대한 이야기로 담아낸다. 작업의 타이틀은 '상점의 초상'이다.

김시오 작가는 회화작가로서 과거의 회상이나 미래의 희망보다는 현재의 모습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 순간 작가가 바라는 그곳을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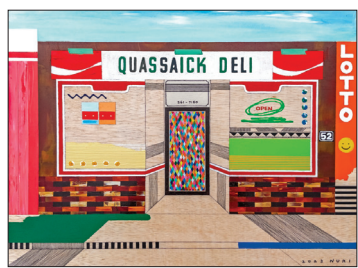
노미정 작가는 도형풍경을 중시했다. 캔버스 화면을 인큐베이터라 칭하고 도형적 형태 안에서 남다른 현실과 호흡하고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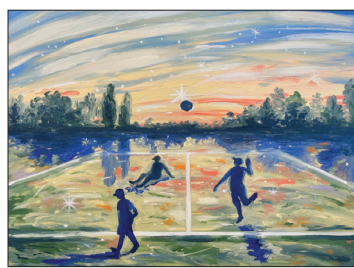
'그라운드 서학 24' 포스터



손은영 작가 작품



김누리 작가 작품



김시오 작가 작품

계 없이 마음껏 재생되는 도형적 작품으로 구성했다. 이주원 작가는 회화작가로 사람의 '걷는 발'을 그려냈다. 목적성 없는 행위와 평생을 해매며 정체성을 찾아가는 '살아있음'을 증명했다. 박재연 작가는 조각으로 표현했다. 안과 밖을 넘나드는 유기적 형태로서 식물들의 뿌리의 생명력을 선적인 이미지를 차용하고 있으며 재료는 동과 백시멘트를 주로 사용하여 작품을 제작하고 있다. 조진규 작가는 작고 부드러운 무게

감 없이 마음껏 재생되는 도형적 작품으로 구성했다. 이주원 작가는 회화작가로 사람의 '걷는 발'을 그려냈다. 목적성 없는 행위와 평생을 해매며 정체성을 찾아가는 '살아있음'을 증명했다. 박재연 작가는 조각으로 표현했다. 안과 밖을 넘나드는 유기적 형태로서 식물들의 뿌리의 생명력을 선적인 이미지를 차용하고 있으며 재료는 동과 백시멘트를 주로 사용하여 작품을 제작하고 있다. 조진규 작가는 작고 부드러운 무게

감 없이 마음껏 재생되는 도형적 작품으로 구성했다. 이주원 작가는 회화작가로 사람의 '걷는 발'을 그려냈다. 목적성 없는 행위와 평생을 해매며 정체성을 찾아가는 '살아있음'을 증명했다. 박재연 작가는 조각으로 표현했다. 안과 밖을 넘나드는 유기적 형태로서 식물들의 뿌리의 생명력을 선적인 이미지를 차용하고 있으며 재료는 동과 백시멘트를 주로 사용하여 작품을 제작하고 있다. 조진규 작가는 작고 부드러운 무게

# 전주음식 브랜딩 아카데미 참여자 모집

한국전통문화전당, 20일까지 접수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오는 20일까지 '2024 전주음식 브랜딩 아카데미'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11일 전당에 따르면 이 아카데미는 관내 외식업소의 서비스 개선과 변화하는 외식업 트렌드 인식을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를 강사로 초청해 더욱 발전된 전주음식 문화 확산에 목적을 뒀다.

총 6회 집합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내용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2024 외식 트렌드 △전주 식재료를 활용한 일품 요리 △전통의 맛을 담은 특별한 음식 선물포장, 보자기 아트 △한 끼가 되는 건강한 디저트 △서비스 교육 등으

로 구성됐다.

특히 경기도 한국조리박물관 견학을 통해 타 지역 음식 거점 공간 방문뿐만 아니라 외식업 소간 친목 도모와 정보를 교류하는 기회도 주어질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전주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후 1년 이상 경과한 업소의 대표 및 종사자 30명이며, 한국전통문화전당 누리집(ktcc.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필요서류와 함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김도영 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전주음식의 맛과 멋을 높이고 외식업소들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전주 관내 외식업소 간의 네트워크 교류가 활성화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남원시민도예대학 상반기 개강식이 지난 8일 열렸다.

# 융복합 도예교육 시설로 도약한다

남원시민도예대학, 전문 도예 강사 위촉·인재 양성 위한 교육과정 개설 운영

남원시는 춘향테마파크에 시설된 시민도예대학의 새단장을 마치고 도예의 창작활동을 위한 융복합 도예교육 시설로 거듭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남원시는 개관 25주년을 맞이한 도예대학이 도자문화의 거점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 전문 도예 강사 위촉 및 도예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 수강생 63명 대상 8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간다.

이번 교육과정은 도예의 이론 지식과 실기 강의를 시작으로 도자기 제작부터 판매전략, 도자 기능사 자격증과 공모전 활동 등을 제시 도자기 생산에 그치지 않고 전시와 판매, 나아가 신진작가까지 연계해 도예작가로서의 능력 향상과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편성했다.

한편 도예대학은 작년 8월 일본 가고시마현 히오키시와 도자 문화발전을 위한 우호 협력 교류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고, 중국 징더전과는 작년 10월 도자문화 발전을 위한 우호협력 등 상호발전을 위한 협력관계 추진해

오는 5월 춘향테마파크에 시설된 시민도예대학의 새단장을 마치고 도예의 창작활동을 위한 융복합 도예교육 시설로 거듭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남원시는 개관 25주년을 맞이한 도예대학이 도자문화의 거점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 전문 도예 강사 위촉 및 도예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 수강생 63명 대상 8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간다.

이번 교육과정은 도예의 이론 지식과 실기 강의를 시작으로 도자기 제작부터 판매전략, 도자 기능사 자격증과 공모전 활동 등을 제시 도자기 생산에 그치지 않고 전시와 판매, 나아가 신진작가까지 연계해 도예작가로서의 능력 향상과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편성했다.

한편 도예대학은 작년 8월 일본 가고시마현 히오키시와 도자 문화발전을 위한 우호 협력 교류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고, 중국 징더전과는 작년 10월 도자문화 발전을 위한 우호협력 등 상호발전을 위한 협력관계 추진해

오는 5월 춘향테마파크에 시설된 시민도예대학의 새단장을 마치고 도예의 창작활동을 위한 융복합 도예교육 시설로 거듭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 전주문화재단, 공유화음실 2분기 정기대관 모집

전주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공유화음실이 오는 25일까지 2분기 정기대관 신청을 받는다. 이에 따르면 4월부터 6월까지 운영되는 2분기 정기대관 공간인 공유화음실은 94.9㎡(28.8평) 규모로, 전주 원도심 풍문길 60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음향시설과 강의용 테이블, 의자 등을 갖추고 있어 소규모 전시부터 교육 세

미나까지 다목적 활용이 가능하다.

2분기 정기대관 가능 요일은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며, 대관 시간은 오전과, 오후, 그리고 야간 등 시간대별로 운영된다.

전주 관내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 대관료는 무료다.

단, 종교 및 정치적 행사, 단순 기업 행사 및 회원 모집 등 영리 목적의 공연(행사)은 제외된다.

대관을 희망하는 단체는 전주문화재단 누리집(https://jcf.or.kr)을 참고해 대관신청서류를 내려 받은 후 작성해 기간 내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전주문화재단 생활문화팀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parhe21@jcf.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결과는 대관 심의 후 오는 28일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옛 전북의 구심점

###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차였다.

##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관풍각**

**내아**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하강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화유신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